

신안 안좌·자라도 주민들, '태양광 연금' 받는다

전국 첫 신재생에너지조합 개소...내달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

신안 안좌·자라도 주민 3221명이 다음달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의 '태양광 연금'을 받는다.

신안군은 지난 15일 안좌면사무소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했다. 전국 최초 '이의 공유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다.

이 지역 주민은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참여한 주민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다. 태양광발전 규모는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로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주민 협동조합은 이익을 공유하고자 다음달부터 안좌도 주민 2945명과 자라도 주민 276명 등 총 3221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160만원을 지역화폐인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신안군은 지

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 연금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협동조합으로 주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지도, 사육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주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의 즉시, 만 40세 이하의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의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안 안좌·자라도 주민들이 참여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15일 안좌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신안군 제공>

신재생 개발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을 믿고 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줘 평생연

금이 실현됐다"며 "앞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tee@kwangju.co.kr

목포~제주 씨월드고속웨리 전남 소방공무원 50% 할인

국내 제주기점 항로 1위 선사인 씨월드고속웨리(회장 이혁영)와 전남소방공조회는 최근 전남지역 소방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기관 공무원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남소방본부 산하 전남지역 18개 소방서 소속 전체 공무원 3500여명의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최대 5인까지 주중 50%, 주말 20%의 할인 운임을 적용받는다.

씨월드고속웨리는 지난해 9월29일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국내 최대·최고 초호화 크루즈형 카페리 컨체누비아호를 운항하고 있다.

한편, 씨월드고속웨리는 내년 3월 제주기점 최단거리 항로인 진도항에서 '새로운 제주벚길, 바다 위 KTX'라는 슬로건으로 신조 초쾌속선 '산타모니카호'를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i@kwangju.co.kr

목포시, 영산강변에 자전거터미널 개장

옥암동 옛 황포돛배 매표소에 2층 규모·정비·휴식·보관 등 서비스

목포시가 자전거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산강변에 자전거터미널을 조성, 최근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자전거터미널은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돼 조성됐다.

자전거터미널은 영산강자전거길이 있는 옥암동 옛 황포돛배 매표소에 연면적 125㎡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사업비 3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목포시는 자전거터미널을 정비, 휴식, 보관 등의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센터로 운영한다.

1층에는 사무실 및 자전거 수리소가 설치된 가운데 자전거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산강 자전거

길을 종주하는 자전거 이용객과 시민에게 안전교육, 수리, 보관,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게음식점은 1·2층에 마련됐으며,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한다.

자전거터미널이 개장함에 따라 영산강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인구의 저변 확대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자전거터미널은 시민과 자전거동호인의 건강 증진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끌어 목포가 친환경도시로 발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시는 자전거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산강변에 자전거터미널을 조성, 지난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목포시 제공>



영광경찰 '영장 업무' 특강 장정희 변호사 초청

영광경찰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장정희 변호사를 초청해 '법원 시각으로 바라본 수사기관의 영장업무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영광 출생인 장 변호사는 강연에서 판사 시절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영장 신청 시 유의 사항과 외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법원 실무 등을 소개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휴대폰·SNS 등 압수수색영장의 중요성과 수사 절차적 위법으로 인한 영장 기각 사례 등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영광경찰서 수사관뿐만 아니라 전남경찰청과 장성경찰서 수사관들도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책임수사 체제에서 경찰수사 방향과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수사관의 영장 실무 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 법성포단오제 대폭 축소...제전행사만 진행

2년 연속...보존회, 절감 예산 '코로나 극복' 투입 등의

500년 전통의 영광 법성포단오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를 대폭 축소해 개최한다.

영광군은 오는 6월 11~14일 나흘간 열리는 '2021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제전행사'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년 연속 축제를 축소하는 것은 법성포단오제보존

회 측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에 쓰일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흔쾌히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행사 축소로 국악경연대회, 단오장사 씨름대회, 관광객과 함께하는 단오 퍼레이드, 강강술래, 단심 줄놀이 등의 프로그램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단오제의 전통 계승과 보존을 위해 '용왕제·산신제·당산

제·선유놀이' 등 제전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음력 5월5일 '단오' (수릿날)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센 날로 농경사회에서는 파종과 모내기를 마친 후 그네뛰기, 탈춤, 씨름 등 민속놀이를 즐기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휴식을 취했던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다.

영광군 관계자는 "500년 전통을 이어온 법성포 단오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쉬어가게 돼 아쉽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할 때"라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